

# 건강정보서비스 제공을 통한 도서관의 역할강화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trengthening of the Library's Role via the Provision of Health Information Service

노 영 희 (Younghee Noh)\*

### 초 록

현 시대는 고령화 사회,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의 관심증대, 의료비 감소를 위한 국가의 관심 증대 등으로 건강정보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증가된 상황이다. 이에 문헌정보학계의 연구노력, 도서관계의 건강특화서비스 제공 노력, 그리고 국가차원에서의 노력이 이루어져 왔으나, 도서관계에서의 통합적 및 체계적으로 건강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이나 전략은 명확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 수행된 선행연구 및 정책연구, 그리고 사례조사를 통해서 도서관에서 건강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건강정보제공통합시스템 구축, 건강관련정보의 총체적 DB 구축, 건강특화 도서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건강정보서비스 총괄지원센터 운영, 건강정보서비스관련 부처 및 기관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이후 도서관이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서비스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ABSTRACT

Today, interest in health information has risen overall due to the aging society, increased public interest in the quality of life, and the increased state's interest in reducing medical costs. Accordingly, efforts have been made across th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 terms of academic research, libraries in terms of providing health specialized services, and the state, yet policies and strategies for providing the health related information in an integrated and systematic manner through the libraries have not been proposed with clarity to date. Thus, this study aimed to propose a method to provide the health information in an integrated manner by the libraries through the previous studies, policy studies, and case studies. Consequently, it proposes to build a system to integrate the health information, build an overall database of the health related information, develop and operate a health specialized library program, operate a general support center for the health information service, and build a cooperative network among the related departments and institutions for the health information service. The details proposed by this study is likely to contribute to developing services for improving the health of the citizens of this country.

키워드: 건강정보, 건강정보서비스, 고령화 사회, 국민의 건강증진, 건강특화 도서관, 건강정보통합시스템  
Health information, Health Information Service, Aging Society, Health Promotion for the  
Citizens, Health Specialized Library, Integrated Health Information System

---

\*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rs4u@kku.ac.kr)  
논문접수일자 : 2019년 5월 13일 논문심사일자 : 2019년 6월 5일 게재확정일자 : 2019년 6월 19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0(2): 117-144, 2019. [http://dx.doi.org/10.14699/kbiblia.2019.30.2.117]

## 1. 서론

4차 산업혁명시대(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인공지능, 로봇 등)를 선도하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도서관서비스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발전은 정보활용의 보편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서비스 확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식 정보 취약계층 도서관서비스 강화를 위해 진행된 세부추진과제로는 장애인도서관 서비스 활성화, 장애인용 대체자료 확충 및 맞춤형서비스 강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확대,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병원도서관 서비스 강화, 수용자를 위한 교도소도서관 서비스 강화, 장병을 위한 병영도서관 서비스 강화 등이 있다(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19). 그 중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건강정보제공, 장애인을 위한 건강정보제공, 노인을 위한 건강정보서비스 제공이 최근 이슈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1%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하였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고, 17년만인 2017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7년 8월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는 725만 7,288명으로 전체인구(5,175만 3,820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0%를 처음 넘어섰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통계청의 '2016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16년 11월 1일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는 675만 5,000명으로 총인구(5,127만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3.6%이다(중앙일보 2017).

이러한 추세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6년에 초고령사회(Post-aged Society)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100세 시대'의 진입예고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사회적 분위기, 정부 정책·제도, 국민 개개인의 인식 수준이 아직까지 '80세 시대'에 답보 중이다. 또한 100세 시대를 대비한 건강한 노년기의 생활도 중요하지만 국민 모두의 평생건강도 매우 중요하다. 병원이나 의료기관을 찾기 전에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건강정보에 대한 접근장벽을 낮추고 상업적이지 않은 전문화된 지식의 공적인 제공은 국민건강생활의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더불어 인터넷 사용량 증가,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 증가,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등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건강정보 사용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대한의학회 2016), 검증되지 않은 인터넷상 접근(66.4%), 홍보·마케팅 등 상업성 위주의 정보제공 등으로 문제가 심각해 질 수 있다고 지적되고 있으며,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건강정보에 대한 통합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지식정보서비스 제공기관이자 고령화 사회 공직복지의 한 축이며, 건강정보제공기관으로서의 도서관 역할 확대는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생활 속 접근성이 높은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지역 의료기관 등과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건강정보서비스 제공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도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도서관들의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 최근 부처간 연합·연계·협업·통

합을 지향하여 범부처 차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도서관이 건강정보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보건복지부의 건강정보와 도서관의 서비스 시스템을 결합하여 건강정보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면 정부부처간 협업을 통한 국민의 건강증진이라는 대의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강정보서비스 환경 및 웹 환경, 국제환경, 정책동향, 국가시책, 그리고 선행연구 등을 총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도서관에서 건강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도서관에서의 건강정보서비스 제공 필요성에 대해 주장한 연구가 상당히 진행되었으나 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국가기관에서 정책으로 채택할 수 있는 세부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는 공공도서관이 특화를 지향하여 건강정보 특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거나 정부기관에서 정책결정을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2. 선행 연구

건강정보는 환자나 보호자만이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며 노인도 이들만큼이나 건강정보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사회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들이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로는 건강 문제(40.3%)와 경제적 문제(41.4%)인 것으로 나타나고(Statistics Korea 2010) 있는 만큼 노인의 건강정보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의학의 발달로 질병회복과 식생활의 향상으로 건강한 삶에 대한 인식이 적극적인 건강관련 정보를 추구하는 행태로 바뀌어가고 있는(Cutilli 2005) 것을 보면, 건강정보에 대한 관심은 전 국민의 관심사임을 알 수 있다. 건강한 국민이 건강한 국가를 유지하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정부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이에 건강정보와 관련된 연구는 다양한 측면에서 수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중에서 도서관 또는 건강정보서비스와 관련하여 수행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먼저, 노인에 대한 건강정보 서비스 관련 연구로 나경식과 정용선(2017)은 노인이 건강정보검색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감정변화를 경험하는지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노인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에는 크게 인지적 어려움과 신체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노인들을 위한 도서관의 역할을 제안하였다.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건강정보 웹사이트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도 수행되었다(장덕현, 구본진 2016). 이 연구에서는 이들에게 유용한 건강정보의 구조와 내용이 어떠한지 파악하고, 국내에서 결혼이주여성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웹사이트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해당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건강정보를 대상으로 그 내용과 특징을 파악하여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인터넷 건강정보 제공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공공도서관에서 건강정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건강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건강정보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 연구

가 국내에서도 상당히 수행된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노영희와 오상희(2011c)는 문헌분석을 통해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해야 할 건강정보로 장서 및 정보원 개발, 참고서비스, 이용자 교육, 취약 계층에 대한 서비스, 아웃리치프로그램 개발, 협력체계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내 공공도서관의 건강정보서비스 사례 분석(노영희 2011), 소비자건강정보에 대한 사서들의 인식 조사(노영희, 오상희 2011a) 및 이용자들의 인식조사 등(노영희, 오상희 2011b)을 통해 사서와 이용자 모두 공공도서관을 통한 건강정보서비스의 제공을 높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그러나 건강정보서비스를 올바르게 이해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서와 이용자 모두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되었으며(노영희 2012), 구체적으로 헬스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제로 개발하여 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입증하였다. 이 때 사서가 이용자에게 올바르게 건강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사서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업무를 전담하는 사서를 건강정보 전문 사서라고 명칭하고, 이들의 역할 및 직무, 필요 능력 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노영희 2013a). 한편, 도서관에서 건강정보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공도서관 및 의학도서관, 의료기관 등의 의료관련 커뮤니티가 함께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협력모형을 제안하기도 하였다(노영희 2013c). 도서관에서의 건강정보서비스 제공이라는 것을 보다 실천적이고 현실화시키기 위해 공공도서관의 건강정보서비스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제시하기도 하였다(노영희 2013b).

한편, 건강정보이해능력과 의료비 지출과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도 수행되었다(오영삼 2018). 세계보건기구(WHO)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위원회(Commission on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CSDH)'에서는 건강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의 하나는 건강정보이해능력이라 하였다. 부적절한 수준의 건강정보이해능력을 보유했을 경우, 낮은 수준의 자기관리(self-care), 나쁜 수준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게 되고(Baker et al. 1997), 낮은 수준의 의료지식으로 인해 건강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에 장애(Sudore et al. 2006)가 일어나며, 결론적으로 건강정보이해능력이 낮을수록 적절하게 서비스(의료, 예방, 돌봄)를 이용하지 못하여 개인의 건강저하와 국가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다(Baker et al. 2007; Lee et al. 2012; 김영선 외 2014).

위의 연구결과를 볼 때, 현 시대는 고령화 사회,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의 관심증대, 의료비 감소를 위한 국가의 관심 증대 등으로 건강정보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증가된 상황이다. 이러한 추세와 함께 문헌정보학계에서도 건강정보서비스를 도서관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도서관에서는 건강정보자료를 제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건강정보를 특화주제로 선언하여 특화도서관을 진행하는 공공도서관도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연구가 연구수준에 머물러 있고 건강정보를 도서관에서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연구는 수행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도서관에서의 건강정보제공과 관련된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3. 연구설계 및 방법론

#### 3.1 연구방법

초고령화시대를 대비하고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도서관계 및 문헌정보학계에서는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고 있지만 여전히 도서관을 중심으로 건강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방안이나 전략은 미흡한 상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기관에서 정책으로 채택할 수 있는 세부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건강정보서비스 환경 및 웹 환경, 국제환경 분석, 정책동향, 국가시책, 그리고 선행연구 등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첫째, 건강정보서비스 환경 및 웹 환경의 변화, 그리고 이와 관련된 국제환경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건강정보서비스와 관련된 정책 및 국가시책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둘째, 국내 도서관 건강정보서비스 제공현황에 대해서 조사·분석하였으며, 건강정보로 특화된 도서관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셋째, 건강정보서비스 제공현황에 대한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넷째, 도서관에서의 건강정보서비스 관련 선행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위의 과정을 기반으로 도서관을 통해 건강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이는 도서관의 위상 및 역할을 강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3.2 연구질문

해외에서는 일찍이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강정보서비스를 도서관에서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각종 사례나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국내에서도 그 노력이 다양한 방면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예컨대 도서관종합발전계획에 건강정보서비스시스템 구축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건강 및 노인특화도서관 구축을 통해 건강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도서관도 늘어나고 있다. 또한 병원도서관의 서비스를 확대하여 의사나 간호사뿐만 아니라 환자나 보호자에게까지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노력하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을 통해서 건강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를 위해선 건강정보서비스 제공 현황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 RQ 1: 국내외 도서관에서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사례는 어느 정도인가?
- RQ 2: 건강정보를 도서관에서 체계적으로 제공함에 있어 현재 문제점은 무엇인가?
- RQ 3: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도서관계를 포함한 국가에서는 어떠한 정책이나 노력을 해야 하는가?

### 4. 건강정보서비스 제공현황 분석

본 연구에서는 건강정보서비스의 환경을 포함하여 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건강정보서비스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건강정보서비스의

환경 분석은 건강정보수요, 건강관련 정보의 제공기관, 건강정보의 원스톱서비스 제공여부 등을 포함하여 현황 중심으로 홈페이지, 각종 정책연구, 기사 등을 참조하였다. 또한 해외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국내의 환경을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 4.1 국내 도서관중심 건강정보서비스 현황

본 절에서 소개되는 국내 도서관 중심 건강정보서비스는 건강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으로 각종 정책연구 및 기사 등에 소개된 도서관들이다. 사실 해외와 비교해서 볼 때 국내 도서관들은 건강정보서비스를 특화시켜 중점적으로 제공하는 도서관이나 시스템은 매우 빈약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 4.1.1 수봉도서관 건강정보+

인천광역시 설립하고 인천광역시도서관발전진흥원이 운영하는 수봉도서관은 건강을 특화서비스 분야로 선정해 '건강정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온·오프라인 통합서비스로, 온라인상에서는 정보서비스 팟캐스트 리본을 시작으로 페이스북과 블로그로 서비스 채널을 확장하고 있다. 오프라인으로 제공되는 정보서비스는 면역성, 성인, 소화기, 심혈관, 호흡기 분야별 건강정보서비스팩 5종을 제작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며, 열린누리(종합자료실) 내에 건강정보 특별서가를 설치해 최신정보가 담긴 도서를 만나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봉도서관은 인천의료원 및 미추홀구 보건소와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내 건강정보 제공을 위한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수봉공

원에서 진행한 '찾아가는 건강체험관'은 건강 염려증 설문조사를 실시해 참여자 모두에게 건강정보서비스팩과 비타민 타일을 제공했다. 이를 통해 수봉도서관은 지역주민의 건강지킴이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삶의 행복지수 향상 및 건강 회복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 4.1.2 양천구, 건강 특화 '개울도서관 & 건강센터'

양천구의 공공도서관인 '개울도서관&건강센터'는 '건강'을 테마로 하여 '개울도서관&건강센터'를 설립하였으며, 총 10억8천여만원의 예산에 기존 도서관 내 유휴공간을 추가 활용하고 체력단련실을 건강센터로 리모델링했다.

이 센터에서는 노화·통증·장애 등 신체 기능 향상을 위한 유산소 순환운동기, 근력 및 균형감각 증진을 위한 전신교차진동 운동기 등이 설치되어 있고 시·지각 반응 능력 평가 및 훈련을 위한 인지증진 시스템도 도입했다. 이 공간은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기존의 단순한 체력단련실을 넘어 예방적 차원의 건강관리와 과학적인 신체리듬 조절까지 가능해진 공간으로 구성하였으며, 운영은 양천구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다. 도서관은 계단에도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걷기의 올바른 자세, 계단을 오를 때마다 소모되는 칼로리, 건강수칙 등 유익한 건강정보를 시각적으로 계단에 표현함으로써 보다 쉽고 재밌게 계단 오르기를 유도하고 있다. 다양한 건광관련 서적뿐만 아니라 아로마 테라피 공간이 있어, 책을 읽으며 힐링을 할 수도 있다.

한편, 중앙치매센터가 선정하는 '치매극복 선도도서관'에 선정돼 이를 기념하는 현판식도 열

었다. '치매극복 선도도서관' 지정 사업은 공공 도서관 내에 치매관련 도서 및 자료를 비치하여 치매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올바른 치매정보를 제공해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선도도서관 지정에 따라, 개울도서관은 2층 종합자료실 내에 치매정보 도서코너를 구성하고, 치매극복관련 도서와 최신 국가치매관리사업 홍보물 및 간행물을 비치하고 있다.

#### 4.1.3 수성구립 범어도서관의 치매예방프로그램

2013년에 개관한 범어도서관은 지식과 정보, 문화가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지식정보 제공과 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의 장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역내 최초로 U-클래스를 적용한 현대적 감각으로 건물 외관과 책을 펼친 모양의 통풍구, 책조형물, 범어라는 지명을 살린 물고기 조형물, 지역시인인 이상화 시비 등 우수하고 특색있는 조경과 조형물을 장식해 도서관을 찾는 이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치매센터 및 광역치매센터에서 운영하는 치매극복선도단체 사업 중 하나인 '치매극복 선도도서관'으로 선정되어, 3층 종합자료실1 내에 독립된 치매도서코너를 설치하여 지역주민에게 최신 치매관련 정보 및 도서를 제공하고 있다.

범어도서관은 치매예방프로그램으로 치매의 심증상과 예방수칙, 치매예방운동법 등 치매를 이해하고, 치매상식, 치매예방 교육 등을 제공한다.

#### 4.1.4 대구광역시립북부도서관의 치매정보서비스

1983년 11월 24일 개관한 이래 30여 년의 역사를 가진 북부도서관은 25만여 권의 국내외 도서를 비롯하여 19,000여 점의 디지털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소장하여 지역 주민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평생교육 증진을 위해 계층별 평생교육강좌,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활동,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종합자료실도 7만권의 책과 230석의 열람좌석으로 확장해 일반도서 외에도 디지털정보자료, 정기간행물, 교과연계 독서자료와 장애인코너, 치매자료코너, 자료실 쉼터 등 마련해 원스톱 정보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2018년 대구광역시립북부도서관과 (주)KT, 대구광역치매센터, 대구북구치매안심센터는 치매극복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으로 개발한 치매예방프로그램인 'IT활용기억청춘교실 프로그램'을 북부도서관에서 2018년 3월 7일 주1회 2개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프로그램 내용은 치매의 이해 및 관련정책안내, 치매예방체조, 두근두근 뇌운동, VR을 통한 치매가상체험, 치매체크 앱활용법, 증강현실과 로봇코딩을 활용한 인지력 향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4.2 해외 도서관 중심 건강정보서비스 현황

해외 도서관에서의 건강정보서비스는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 국내외 선행연구를 통해 우수사례로 소개되고 있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집중적으

로 분석되는 정보원 외에도 공공도서관 및 의  
학도서관 간 협력네트워크인 유타주건강정보네  
트워크(UCHIN), 노스캐롤라이나 주 샬롯 &  
메클렌버그 카운티 공공도서관(Public Library  
of Charlotte & Mecklenburg County)의 정  
보 서비스 직원이 추천한 신뢰성 있는 보건 웹  
사이트 링크를 제공하는 HealthLink Plus, 윈  
스톱으로 약물 정보를 제공하는 NLM Drug  
Portal, 임상시험의 위치, 설계 및 목적, 참여 기  
준, 추가 질병 및 치료 정보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는 ClinicalTrials.gov 등이 있으며, 각각 특  
징적이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  
로 알려져 있다.

#### 4.2.1 ETSUQCOML 협력프로젝트

ETSUQCOML(East Tennessee State Uni-  
versity Quillen College of Medicine Library)  
는 공공도서관, 공중보건부서, 그리고 농촌도서  
관이 건강정보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있도록 이  
들에게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수  
행하였다.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네 가지 목적은  
1) 공공도서관 사서에게 건강정보탐색 교육, 2)  
공중보건부서 직원이 유능한 건강정보탐색전문  
가가 되도록 교육, 3) 농촌병원에 근무하는 간  
호사, 의사, 기타 직원들에 대한 교육, 4) 도서관  
의 헬스인포익스프레스(HealthInfoExpress)에  
대한 요청수를 늘리는 것이다. 헬스인포익스프  
레스는 시민들이 ETSUQCOML 직원들로부터  
무료로 소비자건강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수신자무료서비스(클로버서비스)  
이다. Carter와 Wallace(2007)는 이 프로젝트  
가 일반인들이 품질 높은 건강정보를 찾는데 있  
어서의 문제점을 건강정보리터러시를 협력적

로 향상시킴으로써 해결하였다고 평가하였다.

#### 4.2.2 NLM 협력네트워크

국립의학도서관(National Library of Medicine,  
이하 NLM)은 약 4년 동안 품질 높은 의료정보  
를 의료소비자(health care consumer)에게 제  
공하는 역할을 앞장서서 수행하여 왔다. 1997년  
NLM은 의료소비자들을 위한 두 개의 주요 기  
능으로 첫째, MEDLINE을 포함한 주요 데이  
터베이스를 인터넷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웹을 통해서 NLM데이터베이스  
에 접속하는 이용자들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  
록 하였다. 그 이후 MEDLINE 탐색건수는 연  
간 2억 명을 넘어서게 되었고, NLM은 소비자  
건강정보서비스에 대한 노력을 끊임없이 증가하  
고 있다. 또한 의학도서관국립네트워크(National  
Network of Libraries of Medicine, NN/LM)  
는 공공도서관이 소비자건강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서의 역할을 탐구하고, NLM과 NN/LM  
의 회원들이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협력하는지를 탐구하기 위한 공공도서관  
CHI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는 대중에  
대한 건강정보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NN/LM  
도서관과 회원그룹간의 협력관계를 형성함에  
있어서 34개 주의 49개 기관과 계약을 맺게 되  
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의 대부  
분은 공공도서관뿐만 아니라 공중보건부서, 학  
교, 교회, 지역사회기반단체, 의사단체, 그리고  
기타 의료서비스제공자, 의료교육자, 의료중개서  
비스자 등을 포함한다(Wood et al. 2000). NLM  
은 의학도서관협회(Medical Library Association,  
MLA) 및 공공도서관협회(Public Library  
Association, PLA)와 공동으로 후원하여 최초



로 소비자건강컨퍼런스를 개최하였으며, 이를 통해 협력에 대한 정보 및 재정지원의 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동료들과 협력하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공공도서관과 건강학도서관들의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한 의학도서관협의회는 2001년에 소비자건강정보자격증프로그램(Consumer Health Credential Program)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 4.2.3 노아(NOAH)

노아(New York Online Access to Health, NOAH)는 전자형태의 CHI정보원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가장 오래되고 잘 알려진 협력프로젝트 중 하나이다. 1994년에 뉴욕시립대학교(City University of New York, CUNY), 메트로폴리탄뉴욕도서관협의회(Metropolitan New York Library Council, METRO), 뉴욕의학아카데미(New York Academy of Medicine, NYAM), 그리고 뉴욕공공도서관(New York Public Library, NYPL)이 공동으로 설립한 노아는 일반인에게 쉽게 접근되어지고 이해되어질 수 있는 건강관리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노아의 파트너십은 점차 확장되어 브루클린공공도서관(Brooklyn Public Library)과 퀸즈보로공공도서관(Queens Borough Public Library)까지 포함되었고 뉴욕주립도서관(New York State Library)으로부터 일부 지원을 받고 있다. 공공도서관 사서, 의학도서관 사서 및 대학도서관 사서로 구성된 콘텐츠위원회는 노아에 대한 범위를 선택하고 사용자의 의견을 평가한다. 콘텐츠위원회는 공공장소의 공공 액세스 컴퓨터에서 건강관련 기관과 다양한

유형의 도서관들의 정보자원을 통합하여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그룹접근방식을 채택하는 것을 매우 칭찬할 만한 것으로 평가하였다(Voge 1998). 노아의 이용자들은 건강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고 이해하기 쉬운 다채로우면서 간단하게 디자인된 페이지를 선호한다. 노아의 철학은 명확성과 명료성, 그리고 디자인으로, 이는 건강정보를 찾는데 있어서 혼란을 피하게 만들 것이며, 4-5번의 마우스 클릭으로 이용자가 원하는 전문자료(full-text)를 획득할 수 있다. 노아는 전문자료로의 링크를 직접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뉴욕의 사서, 건강전문가들로 구성된 핵심 자원봉사편집자들이 최신의, 적합하고, 정확하고, 편견없는 전문 CHI자원을 탐색하고, 선정하고, 조직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였다. 자원봉사편집자명단에는 건강학 사서, 대학도서관 사서, 공공도서관 사서, 협의회 사서, 기타 뉴욕과 뉴욕지역 이외의 기타 다른 건강전문가들이 등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건강전문가 및 환자 간의 관계가 치료옵션에 대해 서로 논의하는 협력적인 모형으로 가고 있는 가운데, 모든 건강관리소비자에게 이용될 수 있는 포괄적이고 가용적인 자원에 대한 요구는 높아질 것이다(Voge 1998). 노아와 같은 프로젝트는 명확하고 최신의 건강정보를 인터넷기반으로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4.2.4 넷웰니스(NetWellness)

1995년에 구축된 넷웰니스는 신시내티대학교(University of Cincinnati), 케이스웨스턴리저브대학교(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와 오하이오주립대학교(Ohio State University)

의 의료 및 건강전문 교수진에 의해 생성되고 평가된 품질 높은 건강정보원을 제공하는 비영리 소비자건강정보원 웹사이트이다. 2019년 4월 23일 기준으로 224개의 건강주제(Health Topics)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다.

Guard(1996)은 건강정보관리기획, 개발 및 보급을 위한 넷웰니스 모형은 협력 및 '큰 텐트 방식(big tent)'으로 모든 파트너들이 협력과정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넷웰니스의 파트너는 40개 이상의 도서관, 건강진료소, 병원로비, 노인센터, 그리고 커뮤니티센터이며 건강관리소비자의 접근점(access point)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넷웰니스는 오하이오주의 모든 공공도서관을 통해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주차원의 프로그램으로 성장하여 왔으며, 이는 오하이오의 거주자들이 그들의 가장 가까운 공공도서관을 방문하여 넷웰니스가 제공하는 모든 CHI정보원을 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넷웰니스는 CHI정보원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콘텐츠 코디네이터와의 협력으로 웹사이트를 유지하는 팀제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넷웰니스는 사이트 유지에 자금을 지원하는 인포오하이오(INFOhio), 오하이오 학교에 대한 정보 네트워크(Information Network for Ohio Schools), 오하이오링크(OhioLINK), 오하이오의 대학도서관 네트워크(Ohio's Academic Library Network, OPLIN), 오하이오 공공도서관 정보 네트워크(Ohio Public Library Information Network) 및 오하이오주립도서관(State Library of Ohio) 등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Guard는 넷웰니스를 평가하면서, CHI관련 전자자원을 낙후된 도시나 농촌지역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정보고속도로를 확장하는 한편, 서비스를 기획,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관련 기관들 및 개인들과의 협력을 팀워크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Guard 1996).

#### 4.2.5 헬스웹(HealthWeb)

헬스웹은 중서부지역 의학도서관국립협력망 중 건강학도서관들 간의 협력프로젝트이다. 1993년 설립된 이래 헬스웹은 웹사이트 수상자 리스트에 등록되어왔으며, 소비자건강정보제공 측면에서 의학도서관협의회의 'TOP Ten Web Sites'의 하나로 등록되었다. 헬스웹은 건강관리소비자 뿐만 아니라 건강관리전문가 및 건강관리전문사서를 위한 인터넷기반 건강정보원을 평가하고 조직하여 제공한다. 또한 헬스웹은 협력적인 프로젝트로 평가되고 있는데, 사서 및 건강전문가가 함께 일함으로써 공동의 목표(가장 잘 선별된 건강정보원의 제공)를 수립,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헬스웹은 품질 높은 건강정보를 함께 수집하는데 있어서 도서관 간의 협력모형으로써 끊임 없이 언급되고 있는 사이트이다. 의학사서와 공공도서관 사서 간의 협력이 두 그룹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은 Scherrer(2000)에 의해서만 언급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의학사서는 그들의 고객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데 공공도서관 사서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공공도서관 사서는 의학사서와 협력함으로써 유사한 사이트를 구축하는 시간과 노력을 중복으로 들이지 않고 가치 있는 정보원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Sherrer 2000). 헬스웹 모형은 인터넷상의 정보원을 구축하는 다른 주제 분야에도 모범이

되는 협력모형이 될 수 있다고 평가되고 있으며(Redman 1997), 도서관이 끊임없이 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개발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모형은 급변하는 정보환경에 발맞추어 계속 진화해야 할 것이다(Redman 1997).

#### 4.2.6 헬스인포넷(Health InfoNet)

앨라배마(Alabama)에 있는 제퍼슨카운티의 헬스인포넷은 전자형태의 소비자건강정보에 대한 협력적인 노력으로 출현하게 된 것으로, 제퍼슨카운티의 공공도서관들과 버밍햄에 위치한 앨라배마대학교의 리스터힐 건강과학도서관(Lister Hill Library of the Health Sciences of the University of Alabama) 간의 협력시스템이다. 헬스인포넷의 목적은 지역의 자발적인 보건기관(local voluntary health agencies), 건강 전문가 및 기타 의료정보제공자들이 서로 협력하여 일함으로써 건강소비자들의 건강정보에 대한 접근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건강정보제공자들이 중복노력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 헬스인포넷의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질병에 대한 진단을 받거나 새로운 처방전을 받은 건강관리소비자들에게 직접 말하는 '신규 이용자를 위한 참고사항' 섹션이다. 이 섹션은 웹 상에서 발견한 의학정보를 평가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의사에게 질의할 질문에 대해서도 제안하고 있다.

Smith(2001)는 헬스인포넷은 이용자가 공공도서관을 그들의 건강정보를 찾는 최초의 접근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코네티컷의 헬스넷(HealthNet) 모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4.2.7 건강참고센터(Health Resource Center, HRC)

건강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정보참고시스템이 시카고에 있는 일리노이 대학교(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UIC)의 건강학도서관(Library of the Health Sciences, LHS)에 의해 구현되었다. 도서관은 인포트랙의 건강참고센터(InfoTrac's Health Reference Center, HRC) CD-ROM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서 소비자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주단위 시범프로젝트를 구현하기 위해 일리노이주립도서관(Illinois State Library)으로부터 LSCA Title III 기금을 받았다. 프로젝트 참여자들은 시카고, 김슨시, 피오리아, 록 포드, 그리고 어베너 등에 위치해 있다.

#### 4.2.8 캐나다헬스네트워크(Canadian Health Network, CHN)

캐나다헬스네트워크(CHN)는 원래 1997년에 캐나다 국민에게 적합하고 신뢰할 만한 건강정보를 적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설립된 국립인구보건정보센터(National Population Health Clearinghouse)였다. 1999년부터 건강정보에 대한 인터넷 접근을 허용하면서 Allan Rock보건부가 토론토컨벤션센터에서 CHN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CHN은 비영리의 2개 언어(영어, 프랑스어)를 지원하는 웹기반 건강정보원이며, CHN의 미션은 '캐나다 국민이 자신의 건강에 대해 잘 알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CHN은 600여 개 이상의 비영리기관, 대학, 병원, 도서관, 커뮤니티 기관들로부터 건강정보를 제공받아 끊임없이 확장되는 협력적인 '네트워크의 네트워크'이다. CHN사이

트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은 전문성, 정보의 적합성 및 적시성과 신뢰성을 기준으로 협력기관을 선정한다(Murray 2003).

#### 4.2.9 CHI참고서비스(CHIRS)

네브래스카주(Nebraska)는 1985년부터 공공도서관과 의학도서관협력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맥구건의학도서관(McGoogan Library of Medicine)과 7개의 공공도서관이 협력하여 CHIRS(Consumer Health Information Resource Service)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네브래스카 주민들에게 CHI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학도서관 사서는 공공도서관 사서에게 교육훈련과 정보자료를 제공한다. 20여 년 동안 운영되어 온 이 서비스는 현재 개인화된 이용자질의 응답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이 공공도서관을 최초의 접근점(contact point)으로 생각하게 만들어, 지역 도서관 사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4.3 건강정보서비스 환경분석결과

#### 4.3.1 건강정보수요 및 관련정보제공기관의 증가 대비 총체적 서비스 부재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의 보편화로 인하여 이용자들은 물리적인 정보자원에 의존하던 과거와 달리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건강정보의 이용에 있어서도 인터넷은 주요한 매체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미 2004년에 국내 인터넷 이용자(10대~40대)의 84%가 인터넷을 통해 건강정보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조사되었으며(류시원, 하유정 2004), 특정 질병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검색엔진

을 이용하는 경우가 37.5%로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016년 소비자 건강정보 요구 조사에서도 건강정보의 탐색 채널은 크게 인터넷, 매스미디어, 인쇄홍보물, 지인, 전문가 등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 상의 탐색채널은 의료기관 홈페이지, SNS, 인터넷, 특화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으로 나타났다(대한의학회 2016).

국외에서도 미국의 시장조사기관인 Pew의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 성인의 81%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72%는 인터넷을 통해 건강정보를 찾아본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ew Research Center 2013). 연구조사에서 건강정보의 검색 경험이 있는 사람 중 59%는 자신이나 주변사람의 질병에 대해 알아볼 목적으로 검색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미국 성인의 35%에 달하는 인구 비중이다.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건강정보에 대한 요구는 증가함에 비해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의 수는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9년 기준, 랭키닷컴(<http://www.rankey.com>)에서 제공하는 사이트 순위를 분석해 보았으며 그 결과,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는 총 404건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공개된 10위까지의 홈페이지는 <표 1>과 같다.

건강정보에 대한 이용자 및 네티즌들의 이용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인터넷 전문업체들이 의료 및 건강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건강정보에 대한 관심은 정부나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이다. 국민의 건강이 곧 국력이고 국가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 공공기관에서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를 알아보기 위해 네이버, 정부기관 홈페이지 등을

〈표 1〉 국내 건강/의학 정보 제공 사이트 순위

순위	사이트명	사이트 주소
1	건강한 식탁	http://www.dietnote.co.kr
2	헬스조선	http://health.chosun.com
3	마음소풍 심리상담센터	https://www.maum-sopoong.or.kr
4	한국임상의학연구소	www.kcllab.com
5	건강N	https://hi.nhis.or.kr
6	허그맘	http://www.hugmom.co.kr
7	건강을 위한 발걸음	www.steptohealth.co.kr
8	GC Labs	www.gclabs.co.kr
9	녹십자의료재단	www.gcrl.co.kr
10	코메디닷컴	http://kormedi.com

출처: 랭키닷컴. [online]. [cited.2019.5.8]. <http://www.rankey.com/rank/rank\_cate1\_info.php>.

조사하였으며, 40개 이상의 사이트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보건복지관련 공공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중 건강정보 서비스로 분류된 사이트는 〈표 2〉와 같다.

국내의 환경을 분석해 보면 인터넷을 통해 건강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이용자들의 요구, 즉 웹 환경을 통한 이용자의 건강정보 수요는 높아지고 있지만 신뢰성 있는 건강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이트는 없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병원 및 의료기관, 그리고 국가의 보건복지 차원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은 분산되어 있고, 너무 전문적이어서 국민에게 체감도를 느끼게 하기에는 괴리감이 클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Hellth Infonet처럼 건강정보와 관련된 모든 정보자원을 총체적으로 제공하는 사이트의 개발 및 이를 기반으로 한 건강정보온라인서비스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2〉 국내 공공기관 건강정보 사이트 목록

순위	서비스 분류	기관명	특징
1	건강정보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국민 건강에 대한 가치,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정책개발 및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
2	건강정보	식품안전정보포털	• 식품 위해 정보, 식생활에 관한 정보 제공
3	건강정보	아이사랑	• 임신, 육아, 출산, 어린이집에 관한 종합 포털
4	건강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in	• 건강 검진 소개, 검진 기관·병원, 의약품 정보 검색 제공, 건강 정보 및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건강에 관한 제반 서비스 제공
5	건강정보	희귀난치성질환헬프라인	• 희귀난치성질환에 관한 정보와 전문병원, 임상네트워크, 의료비지원사업, 진단지원사업 안내
6	건강정보	중앙치매센터	• 국가치매 콘트론타워로 국가 치매 정책 수립 및 서비스 개발 등 수립
7	건강정보	국민고혈압사업단	• 고혈압 관련 의학정보 및 관련 건강정보 지원 사업
8	건강정보	국가암정보센터	• 암 예방과 검진, 진단, 치료, 생활 가이드, 국가지원프로그램 소개

#### 4.3.2 건강관련정보의 원스톱접근을 위한 DB의 부재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건강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사이트가 분산되어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건강관련 정보를 원스톱으로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이렇게 분산된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베이스도 분산되어 구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건강정보와 관련된 정보들이 각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산업체, 연구기관에서 독자적으로 나름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및 활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은 첫째, 개개 기관간의 데이터 구조가 매우 상이하고 이로 인해 데이터의 호환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둘째, 이용자들은 특정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 여러 사이트를 방문해서 검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어떤 정보가 더 신뢰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셋째, 동일한 정보에 대해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중복구축으로 인한 재정 및 인력낭비 등의 문제가 국가적으로 손해가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데이터베이스의 연계 부족 및 분산구축으로 그 활용의 효율성이 낮아 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하게 된다. 해외사례에서 보면 HealthInfo, NOAH, CLIC-on-Health, Health e-Links 등 많은 시스템이 원스톱서비스를 위해 개발되어 운영 중이다.

따라서 건강 및 의료관련 정보를 총체적으로 구축하여 여러 기관이 공동활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 효율성은 높아질 것이다. 적어도 도서관에서는 관련정보원에 대해 총체적 DB를 구축하여 신뢰성 있는 정보원을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도서관의 역할 및 영역 확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4.3.3 건강특화 도서관 프로그램의 미흡

건강관련 정보자원이 총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고 이를 서비스하기 위한 원스톱제공시스템이 구축된 후에는 도서관에서는 이를 활용하는 건강특화 프로그램의 개발이 수반되어야 한다. 일반인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에 접근한다 하더라도 결국 보다 깊이 있는 정보원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이나 간행물 등을 필요로 하게 되며, 이는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게 된다. 따라서 도서관에 오는 이용자들에게 건강정보자원을 찾고 이용하는 방법, 신뢰성 있는 정보원을 선정하는 방법, 해당 분야 전문가를 만날 수 있는 기회 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일찍이 공공도서관 이용자들의 CHI 정보원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였고,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이용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기도 했다. 또한 의학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공공도서관 이용자 교육의 전문화를 추구하기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델라웨어 공공도서관(Delaware Public Library)은 부모들이 그들의 가족을 위해 적극적인 CHI 탐색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LaValley 2009). 즉, 소비자건강정보전문사서는 어린이사서와 협력하여 공공도서관 내 겨울독서프로그램과 일관성이 있는 활동기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했다. 'Wellness Wednesdays for Kids' 프로그램은

부모와 어린이를 위한 6주간의 프로그램이며, 이를 통해 건강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건강에 대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보다 잘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현황을 조사해 보았을 때 건강관련 도서관 특화프로그램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례를 분석해보면, 첫째, 건강관련 도서관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1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주제가 일관성이 없으며, 연간 운영 횟수도 매우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건강이라는 주제는 전문적이기 때문에 주로 유관기관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기관간 협약을 통해 연속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건강관련 프로그램들이 체계적으로 기획되어 개발되기 보다는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넷째, 본 주제와 관련된 전문가 풀이 구성되어 있지 않고 소개에 의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초청하여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건강특화 도서관 프로그램을 통한 이용자의 건강지식 획득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개발, 건강정보 전문가에 대한 풍부한 인력 풀 구축, 협력기관간 협력적 운영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4.3.4 건강정보서비스 총괄지원센터의 필요

건강정보자원이 총체적으로 구축되고 건강특화관련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보급되기 위해서는 이를 총체적으로 기획하고 지원하는 기관이 필요할 것이다. 사실 전문지식 서비스 기관이자 고령화 사회 공적복지의 한 축으로서 도

서관서비스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생활 속 접근성이 높은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지역 의료기관 등과 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건강정보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본다. 미국이나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도서관들의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인터넷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건강관련 정보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와 그들을 치료하는 의료인들은 정보의 부정확성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최근에는 부처 간 협업·통합을 통해 단일 부처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성과를 추구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서관과 보건복지부의 건강이라는 두 이슈를 범부처적 측면에서 건강정보서비스 제공을 모색하려 하고 있다.

#### 4.3.5 건강관련 전문사서 양성시스템의 부재

한편, 총괄지원센터의 경우 건강관련 서비스를 총체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센터 내 사서의 전문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건강정보전문사서는 질병관련 정보와 만성질환 건강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치료법과 대처전략 건강 및 의학 분야 연구 등 다양한 측면에 관련하여 전문가이어야 한다.

그러나 국내에는 이러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이나 프로그램이 없으며, 건강정보전문사서의 역할강화를 위해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되는 연구만 있을 뿐이다. 건강/의학 관련 교육은 공공도서관 사서와 의학도서관 사서의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타나고 있어(Spatz 2000), 건강관

련 전문사서의 양성 및 이들을 통한 관련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정보를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이용자이며, 건강 및 의료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검색해서 활용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즉 이용자들의 건강정보활용능력은 자신에게 가장 적절한 건강관련 정보원을 탐색하고 활용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능력으로서, 도서관은 이용자들이 이러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Parker and Kreps 2005).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관련 이용자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지, 있다면 어떤 종류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분석했을 때, 국내 공공도서관의 82.1%가 건강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노영희 2011). 반면에 국외의 경우 이용자 교육서비스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웹기반으로 제공되고 있는 사례, 그리고 특정 이용자층에 초점을 제공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 코네티컷(Connecticut) 공공도서관은 'Healthy Web Site'를 통해 건강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Richetelle 2003), 'WebHealth for Seniors' 프로젝트는 노인들에게 초점을 맞춘 교육프로그램이며(Wu 2006), 버팔로 에릭카운티 공공도서관(Buffalo & Erie County Public Library)과 칼레이다 의학도서관(Kaleida Health Libraries)의 'Seniors Connect: A Health Information Project'는 노인과 흑인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이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공공도서관에서 다양한 계층·주제·방법을 활용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5. 도서관의 건강정보통합서비스 방안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도서관에서 건강정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인식이나 필요성은 도서관중합발전계획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특화 도서관 사례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건강정보를 도서관에서 통합적 및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정책이나 전략은 명확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 수행된 선행연구 및 정책연구, 그리고 사례조사를 통해서 도서관에서 건강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에서의 건강정보통합서비스 방안으로, 건강정보제공통합시스템 구축, 건강관련 정보의 총체적 DB 구축, 건강특화 도서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건강정보서비스 총괄지원센터 운영, 건강정보서비스관련 부처 및 기관간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본 절에서 제안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이후 도서관이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기여하게 할 것이다.

### 5.1 건강정보통합시스템 구축

건강정보에 대한 국민의 수요가 증가하고 국민의 건강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기관은 정부기관 나름대로, 그리고 의료기관 및 인터넷 회사들은 그 나름대로 건강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각자 건강 및 의료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총체적인 접근점을 제공한다면 도서관과 연계하여 제공하는 사례는 국내에는 그다지 활성화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건강관련 정보에는 의료 및 건강정책과 관련된 정보도 있지만 건강 및 의료 그 자체에 관련된 정보가 있으며, 이러한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는 웹기반 문서, 책자, 간행물, 유관사이트, 유관기관정보, 해당 분야별 전문가 정보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정보를 총체적으로 구축해서 이용자가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한 국민의 건강증진 역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건강정보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권장되며, 이 시스템은 건강정보 관련 온라인서비스를 통해 건강정보와 관련된 모든 이론 연구에 대한 문헌 및 자료 등 다양한 정보원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건강정보관련 정보원과 건강정보서비스 총괄지원센터를 통해 구축되는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해야 하며, 더 나아가 블로그, 페이스북 등의 각종 SNS 기능을 이용한 의견수렴 및 건강정보 관련 기관들의 커뮤니케이션 통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협력적인 공동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관련 기관 및 사이트와 건강을 주제로 특화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특화도서관, 의학도서관, 의료단체, 건강정보 관련 커뮤니티 등과 MOU를 체결하여 공동구축 및 활용하는 것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

## 5.2 건강관련 정보의 총체적 DB 구축

건강관련 정보자료를 여러 기관에서 분산해서 구축하고 각각 개별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은 신뢰성 있는 건강관련 정보의 활용성

을 낮추고 이용자의 편의성 확보에 저해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이용자는 원하는 정보 및 자료를 찾기 위해 여러 사이트를 방문해서 검색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어느 기관의 어떤 정보가 더 신뢰성이 높으며 어떤 정보원을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혼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 마다 구축된 데이터의 양이 다르고 정보필드가 달라서 정보를 판단하고 정제해서 사용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즉 각 기관에서 독자적으로 DB를 구축함으로써 호환성 및 연계성 미흡으로 이어지고 데이터베이스의 활용 효율성은 저하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건강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총체적으로 구축하여 하나의 사이트에서 또는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구축하여 제공함으로써 이용자가 한 곳에서 원하는 정보를 최대한 획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건강관련 정보 DB를 유형별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건강과 관련된 정보원으로 도서, 논문, 보고서, 정부간행물, 기관, 기타정보원 등 다양한 유형별로 구분하여 정보원을 구축함으로써 이용자가 선호하는 매체로 접근하여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건강관련 각종 정보원의 유형별로 각각의 메타데이터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각각의 정보원에 해당되는 정보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메타데이터에 대한 설계는 기본적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정보원과 유사한 정보원, 정보제공기관, 온라인사이트 등을 총체적으로 분석하여 제공되는 데이터 필드를 개발하되, 건강관련 전문가 및 문헌정보학 전문가가 협력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건강관련 통합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러한 정보를 생산하거나 소장하고 있는 기관과의 협력 또는 협의체 구성도 필요하다고 본다. 기존에 건강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정부기관, 공공기관, 연구소, 병원, 학회 및 협회 등과의 협력망을 구축하고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민건강정보포털, 건강보험자료공유서비스, 질병관리본부 등 협력기관과의 정보 교류 및 연계를 통해 다양한 정보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통합적으로 구축되는 데이터베이스의 신뢰성은 이용자가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기재가 된다. 다른 정보주체도 마찬가지 이지만 건강정보는 특히나 그 정확성이나 신뢰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정보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축하는 정보원에 대한 질적 제고 및 표준화를 위한 품질기준 지침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대한의학회(2016)는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 건강정보 제공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에서 인터넷 건강정보 질적 평가 요소의 기준 우선순위를 내용출처의 명확성, 사용자 이해의 용이성, 내용의 목적성, 정보의 중립성, 내용의 불확실성에 대한 언급, 정보제작 시점 명시로 제시한 바 있다.

### 5.3 건강특화 도서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건강관련 정보원이 구축되고 건강특화정보시스템이 운영되면서 이를 활용하여 건강분야의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스마트 시대가 도래하면서 소외계층 및 노인·장

애인, 결혼이민자 등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정보획득에 있어 취약한 계층이 있으며,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들이 겪는 정보격차는 더욱 심화될 수 있다.

도서관은 모든 계층의 모든 국민이 신분, 신체상태, 교육정도, 처한 환경 등 다양한 상황의 제약을 받지 않고 각종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기관으로서 건강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최적화된 곳이다. 따라서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균등한 방안으로 건강특화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건강특화 도서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함으로써 그 성과를 증폭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 중에서도 건강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특화 도서관 프로그램사업으로 건강 정보·안전한 생활 정보 등과 관련된 이용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체육건강·보건 교육 등 체험으로 하는 프로그램 설계, 이용자를 위한 건강특화 도서관 이용 교육 프로그램 설계 등을 권장한다. 둘째, 건강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노인·결혼이주민 등을 위한 건강 특강 및 정보 관련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건강 교육 프로그램 설계(ex. 한국어가 약한 결혼이주민을 위한 체험을 통해 배우는 건강 프로그램, 그림 및 제작한 영상으로 보여주는 건강 지식 정보 등) 등이다. 셋째, 건강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화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거나 각자 개발하여 공동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전문가 풀도 공동으로 구축하고 공동활용

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분야별 전문가를 폭넓게 활용하고 이용자에게 그만큼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건강특화 협력프로그램 운영 및 전문가 풀을 구성할 경우, 건강특화 도서관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보건·의료 전문가와 도서관 컨설팅 관련 전문가 집단의 협력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보건·의료 전문가와 도서관 컨설팅 관련 전문가 풀을 DB로 구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건강특화 도서관 협력 프로그램은 널리 보급되어야 하는데, 센터가 중심이 되어 건강특화 도서관 실무진 및 관계자를 위한 설명회를 통한 프로그램을 보급하거나 건강특화 도서관 방문을 통한 직원 대상 개발된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방법, 그리고 팸플릿 및 포스터·자료집 제작을 통해 건강특화 도서관에 관련 자료 배포를 통해 보급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다. 지금 현재 건강특화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 5.4 건강정보서비스 총괄지원센터 운영

개개의 공공도서관에서 건강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여건상 힘든 일이다. 아산시립 송곡도서관과 개울도서관&건강센터처럼 건강정보로 특화된 도서관의 경우는 상당한 재정과 인력을 투입하였으며 관련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정보에 대한 관심은 특정 지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며 국가의 관심이자 지역의 관심이며 전국민의 관심이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기본적인 서비스 영역으로 포함을 시켜도 된다. 그러나 전문인력의 한계나

정보자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앞에서 설명한 건강관련 정보원의 구축 및 통합 서비스 시스템 개발, 그리고 이러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의 역할은 하나의 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건강정보서비스 총괄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총괄지원센터에서는 전문지식 서비스 기관이자 고령화 사회 공적복지의 한 축으로서 도서관서비스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그리고 생활 속 접근성이 높은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지역 의료기관 등과 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건강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첫째, 총괄지원센터는 건강관련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사업의 표준화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사업의 자체평가, 수시 점검, 연차 점검, 단계평가, 총괄평가 등을 통해 사업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가이드라인에는 법 관련 기관, 공공도서관, 의학도서관 등을 관리하고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건강정보서비스 총괄지원센터의 관리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할 것이다. 위원회는 연도별 사업계획·평가·관리 등에 대한 주요사항 자문 수행 등을 수행할 수 있다. 건강정보서비스 총괄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려면 운영주체가 필요하게 되는데, 지방분권화시대를 맞아 지역대표도서관에 둘 수도 있지만, 건강관련시스템은 통합적으로 하나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문체부 산하에 두고 위탁 기관 형태로 총괄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본다. 이러한 경우 건강정보서비스 총괄지원센터 및 관련 기관에 대한 각종 제도 및 관리운영규칙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셋째, 건강정보전문가 양성을 위한 고품질의 교육과정 개발하여 건강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건강정보서비스 전

문사서는 공공도서관을 포함한 건강정보서비스 기관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건강정보서비스 총괄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경우 추진해야 하는 세부 내용인 건강정보서비스 총괄지원센터의 역할 및 기능을 제안하면 <표 3>과 같다.

<표 3> 건강정보서비스 총괄지원센터의 역할 및 기능(세부추진내용)

	세부 추진 과제	내용
1	건강정보 관련 세미나/컨퍼런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미나: 연 2회 운영</li> <li>•컨퍼런스: 연 1회 운영</li> </ul>
2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강정보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에게 적합한 건강정보원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 및 증진시키기 위한 공공도서관사서, 공중보건부서직원, 간호사, 의사, 기타 직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li> <li>•이용자 교육프로그램(정보활용교육, 탐색지원, 도서관 활용교육, 이용자 교육) 제공</li> <li>•최신 트렌드, 동향에 대한 소식을 공유하고, 관련 외부 전문가들을 섭외하여 컨설팅을 제공</li> </ul>
3	관련 업무에 대한 홍보 업무를 통한 성과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뉴스·언론, SNS, 관련 기관 간의 성과 공유 및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메일을 통해 정기적으로 뉴스레터를 메일 발송 등을 통한 다양한 홍보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성과 확산을 도모</li> </ul>
4	주기적인 평가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강정보서비스 총괄지원센터의 자체적 평가 수행</li> <li>•관련 기관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 수행</li> <li>•평가로 기반으로 한 우수 사례 선정</li> <li>•자체 평가: 각 사업의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각 기관 차원의 자체 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상시 운영함(기관 운영 전반에 걸쳐 연 1회 이상 실시함)</li> <li>•단계 평가(연차 평가): 연간 사업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평가하기 위한 연차점검 세부계획을 수립 및 수행함(연도별 사업실적보고서에 대한 서면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면담 또는 현장실사를 병행할 수 있음) 협약사항 이행여부, 사업추진상황 및 성과달성 정도, 사업비 집행 실적, 운영결과, 기타 사업추진 관련 주요 사항을 평가</li> <li>•총괄 평가: 각 기관의 최종 사업 운영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최종 년도에 총괄평가를 실시함</li> </ul>
5	건강정보 원스톱 온라인서비스 제공	
6	협력적 참고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협력적 질의응답시스템을 통해서 참고서비스 수행</li> </ul>
7	관련성과의 집적 및 우수사례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과자료집 발간</li> <li>•우수사례집 발간</li> </ul>
8	건강정보서비스 총괄지원센터의 관리위원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원회는 연도별 사업계획·평가·관리 등에 대한 주요사항 자문 수행 등을 수행</li> </ul>
9	건강정보 관련 자료 발간·온라인 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강관련서비스 동향분석 보고서</li> </ul>
10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부처 간 협의체 구성·운영	

## 5.5 건강정보서비스 관련 부처 및 기관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건강정보서비스 관련 부처 및 기관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부처 간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건강정보와 관련된 기관은 병원도서관 및 의학도서관을 포함하여 의료원 및 병원 등이 될 것이다. 이러한 수많은 기관들이 현재 개별적으로 건강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통해 같은 주제를 제공하는 도서관 간의 문제점 해결을 비롯하여 건강정보서비스 사례 공유를 확산하여 국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건강정보서비스 협의체' 추진체계 구성, '건강정보서비스 협의체' 역할에 따른 추진일정 계획, 각 협의체에 대한 사업 목표, 세부 추진 목표, 소개 등을 통해 부처 간 협업 시 참조할 수 있는 기본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 6. 결론 및 제언

### 6.1 논의 및 결론

한국 사회에서 학령인구는 급감하고 있고 노령인구의 증가로 국가 전체의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현 시대가 안고 있는 최고의 문제점이며, 이로 인해 파생되는 수많은 문제점 중의 하나가 국가 전체의 의료비 증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

해 관련 기관에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기관보다 도서관은 국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부담 없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 영역의 기관이며, 건강과 관련된 다양하고 수많은 정보를 체계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기관이다. 다만 이러한 정보는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해야 하고 최신정보이어야 하며, 신속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이에 문헌정보학계는 물론 도서관 현장에서도 건강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서관도 역할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건강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특히 건강정보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결혼이주여성이나 노인을 위한 건강정보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연구도 있다.

국내외 도서관계에서 또는 국가기관에서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사례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조사·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보았을 때 국내의 경우 통합적으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국가시스템은 거의 없으며, 매우 소수의 도서관에서 단발적으로 건강특화 도서관을 지향하며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도서관은 몇몇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강과 독서치유를 특화 주제로 선정하여 각종 건강 및 독서를 통한 치유 프로그램 및 독서심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는 아산시립 송곡도서관, 면역성, 성인, 소화기, 심혈관, 호흡기 분야별 건강정보서비스팩 5종을 제작해 건강을 특화 서비스 분야로 선정해 '건강정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수봉도서관, 유산소, 근력운동을 진행하는 순환운동 프

로그랩을 운영하고 있는 개울도서관&건강센터 등이 있다.

반면에 해외에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건강정보를 도서관 중심으로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해외 도서관 중심 건강정보서비스 현황의 특징을 정리하면 첫째, 공공도서관과 보건관련부서 등이 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CHN은 600여개 이상의 비영리기관, 대학, 병원, 도서관, 커뮤니티 기관들로부터 건강정보를 제공받는 끊임없이 확장되는 협력적인 '네트워크의 네트워크'이다. 보통 협력기관들은 공공도서관뿐만 아니라 공중보건부서, 학교, 교회, 지역사회기반단체, 의사단체, 그리고 기타 의료서비스제공자, 의료교육자, 의료중개서비스자 등을 포함한다. 또한 참여자들은 건강학사서, 대학도서관사서, 공공도서관사서, 협의회사서, 기타 다른 건강전문가 등이다. 둘째, 사람들이 품질 높은 건강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소비자건강정보리터러시를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건강정보탐색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의학사서와 공공도서관사서가 협력하여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건강관련 정보를 협력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례로서 헬스웹은 경우 의학사서가 그들의 고객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함에 있어 공공도서관 사서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공공도서관사서는 의학사서와 협력함으로써 유사한 사이트를 구축하는 시간과 노력을 중복으로 들이지 않고 가치 있는 정보원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넷째, 건강정보에 대한 협력적 참고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HealthLink Plus는 공공도서관의 정보 서비스 직원이 추천한 신뢰성 있는 보건 웹 사이트 링크 제공하고 있으며, Ask-Us-Now 기능을 통해 실시간으로 참고사서와 질의응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처럼 건강관련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국내의 경우 해외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도서관에서 건강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함에 있어 현재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사례분석 및 문헌연구를 통해 밝혀진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정보수요 및 관련정보제공기관의 증가 대비 총체적 건강정보서비스체계가 없다는 것이다. 국내외 환경을 분석해보면 인터넷을 통해 건강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이용자들의 요구, 즉 웹 환경을 통한 이용자의 건강정보 수요는 높아가고 있지만 신뢰성 있는 건강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이트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병원 및 의료기관, 그리고 국가의 보건복지 차원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은 분산되어 있고, 너무 전문적이며 국민에게 체감도를 느끼게 하기에는 큰 괴리감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Health Infonet 처럼 건강정보와 관련된 모든 정보자원을 총체적으로 제공하는 사이트의 개발 및 이를 기반으로 한 건강정보온라인서비스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건강관련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사이트가 분산되어 있고, 데이터베이스의 연계 부족 및 분산구축으로 그 활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용자의 원스톱 접근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서관에서는 관련 정보원에 대해 총체적 DB를 구축해서 신뢰성

있는 정보원을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건강관련 정보자원을 총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이를 서비스하기 위한 원스톱제공시스템이 구축한 후에는 도서관에서는 이를 활용하는 건강특화 프로그램의 개발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건강특화 도서관 프로그램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례조사를 통해서 보았을 때, 건강관련 도서관 프로그램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진행된다 하더라도 1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주제가 일관성이 없으며, 연간 운영 횟수도 매우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건강이라는 주제는 전문적이기 때문에 주로 유관기관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기관간 협약을 통해 연속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건강정보자원이 총체적으로 구축되고 건강특화관련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보급되기 위해서는 이를 총체적으로 기획하고 지원하는 기관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총괄지원센터가 설치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 사회,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의 관심증대, 의료비 감소를 위한 국가의 관심 증대 등으로 건강정보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증가된 상황에서 문헌정보학계를 포함한 도서관계에서는 나름대로 건강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제안될 수 있는지 국내외 사례분석 및 문헌분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건강정보통합서비스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건강정보통합시스템을 구축해서 건강정보 관련 온라인서비스를 통해 건강정보와 관

련된 모든 이론 연구에 대한 문헌 및 자료 등 다양한 정보원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건강정보 관련 정보원과 건강정보서비스 총괄지원센터를 통해 구축되는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며, 더 나아가 블로그, 페이스북 등의 각종 SNS 기능을 이용한 의견수렴 및 건강정보 관련 기관들의 커뮤니케이션 통로를 구축하는 것이 권장된다. 둘째, 건강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총체적으로 구축하여 하나의 사이트에서 또는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구축하여 제공함으로써 이용자가 한 곳에서 원하는 정보를 최대한 획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균등한 방안으로 건강특화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건강특화 도서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함으로써 그 성과를 증폭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 중에서도 건강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넷째, 건강정보서비스 총괄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함으로써 국가차원에서 건강관련 정보원의 구축 및 통합서비스 시스템 개발, 그리고 이러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건강정보서비스 관련 부처 및 기관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관련 원스톱 서비스의 가능성을 제고하고, 각 부처 간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여 국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6.2 제언

현 시대는 고령화 사회,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의 관심증대, 의료비 감소를 위한 국가의 관심

증대 등으로 건강정보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증가된 상황이다. 이에 문헌정보학계의 연구 노력, 도서관계의 건강특화서비스 제공 노력, 그리고 국가차원에서의 노력이 이루어져 왔으나, 도서관에서 통합적 및 체계적으로 건강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이나 전략은 명확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 수행된 선행연구 및 정책연구, 그리고 사례조사를 통해서 도서관에서 건강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에서의 건강정보통합 서비스 방안으로, 건강정보제공통합시스템 구축, 건강관련정보의 총체적 DB 구축, 건강특화 도서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건강정보서비스 총괄지원센터 운영, 건강정보서비스관련 부처 및 기관간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이후 도서관이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

스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가 적용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첫째, 범부처 협업사업 사례를 통해 향후 부처 간 협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부처 간 협업이 단일 부처 보다 효율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정당성과 타당성 점검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다. 둘째, 접근이 용이한 도서관을 대상으로 하여 건강특화 도서관 협력프로그램을 센터의 관리·지원 하에 체계적인 통합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운영함으로써 신뢰성 있고 신속한 건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건강특화 도서관 협력프로그램의 수립 방향 및 향후 제도를 제시하여 해당 사업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들 도서관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센터에서 도서관 간 네트워크 및 연구 성과의 사회적 확산 주도하여 각 도서관의 연계를 통한 허브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영선, 박병현, 이희윤. 2014. 노인의 건강정보이해능력(Health Literacy)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노인복지연구』, 65: 35-57.
- 나경식, 정용선. 2017. 건강정보검색에서 노인이 경험하는 어려움과 감정변화.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8(1): 227-243.
- 노영희, 오상희. 2011a. 공공도서관에서 소비자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사서의 인식 조사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2(3): 25-55.
- 노영희, 오상희. 2011b. 공공도서관의 소비자건강정보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인식 조사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3): 45-77.
- 노영희, 오상희. 2011c. 문헌분석을 통해서 도출한 공공도서관 소비자건강정보(CHI) 서비스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2(1): 47-77.



- 노영희. 2011. 국내 공공도서관의 소비자건강정보 제공현황 조사분석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5(2): 415-437.
- 노영희. 2012.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소비자건강정보(CHI)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성과측정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3(4): 391-414.
- 노영희. 2013a. 건강정보전문사서의 역할 및 자격제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4): 93-122.
- 노영희. 2013b. 소비자건강정보(CHI) 참고서비스 가이드라인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2): 345-376.
- 노영희. 2013c. CHI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협력네트워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2): 265-291.
- 대한의학회. 2016. 『소비자 건강정보 제공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세종: 보건복지부.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19.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 서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류시원, 하유정. 2004.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실태 분석. 『보건복지포럼』, 97: 71-87.
- 오영삼. 2018. 건강정보 이해능력과 의료비 지출과의 관계.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하계 학술발표회』, 199-210.
- 장덕현, 구분진. 2016. 결혼이주여성 대상 건강정보 웹사이트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0(4): 77-96.
- 『중앙일보』. 2017. 65세 이상 인구 첫 14% 넘어...한국 '고령사회' 첫 공식 진입. 9월3일. [cited 2019.9.3]. <<http://news.joins.com/article/21901412>>.
- Baker, D. W., M. S. Wolf, J. Feinglass, J. A. Thompson, J. A. Gazmararian, and J. Huang. 2007. "Health literacy and mortality among elderly persons." *Archives of internal medicine*, 167(14): 1503-1509.
- Baker, D. W., R. M. Parker, M. V. Williams, W. S. Clark, and J. Nurss. 1997. "The relationship of patient reading ability to self reported health and use of health services." *American Journal of PublicHealth*, 87(6): 1027-1030.
- Carter, N. J. and R. L. Wallace. 2007. "Collaborating with public libraries, public health departments, and rural hospitals to provide consumer health information services." *Journal of Consumer Health on the Internet*, 11(4): 1-14.
- Cutilli, Carolyn C. 2005. "Do your patients understand? Determining your patients' health literacy skills." *Orthopedic Nursing*, 24(5): 372-377.
- Guard, R. 1996. "An Electronic Consumer Health Library: NetWellness." *Bulletin of the Medical Library Association*, 84(October): 468-477.
- LaValley, S. 2009. "Delaware health source: consumer health libraries and health literacy outreach."

- Journal of Consumer Health on the Internet*, 13(2): 180-186.
- Lee et al. 2012. "Pathway to health literacy in Korean American immigrants: The mediating role of English proficiency." *Journal of Human Behavior in the Social Environment*, 22(3): 255-269.
- Murray, Susan. 2003. "Canadian Health Network: Health Information you can trust." *Journal of Consumer Health on the Internet*, 7(1): 43-50.
- Parker, R. and G. L. Kreps. 2005. "Library outreach: overcoming health literacy challenges." *Journal of the Medical Library Association*, 93(4): 78-82.
- Pew Research Center. 2013. *Health Online 2013*. [online]. [cited 2019.4.26].  
<[http://www.pewinternet.org/files/old-media/Files/Reports/PIP\\_HealthOnline.pdf](http://www.pewinternet.org/files/old-media/Files/Reports/PIP_HealthOnline.pdf)>.
- Redman, P. M. 1997. "Common Ground: the HealthWeb Project as a Model for Internet Collaboration." *Bulletin of the Medical Library Association*, 85(October): 325-330.
- Richetelle, A. 2003. "Healthy web sites: teaching consumers to search for quality health information on the Internet." *Journal of Consumer Health on the Internet*, 7(2): 35-52.
- Scherrer, C. 2000. "HealthWeb: both a resource for public librarians and a prototype for collaboration among libraries." *Public Library Quarterly*, 18(3/4): 47-51.
- Smith, K. H. 2001. "Health Infonet of Jefferson County: collaboration in consumer health information service." *Medical reference services quarterly*, 20(3): 13-21.
- Spatz, M. 2000. "Providing consumer health information in the rural setting: Planetree Health resource Center's approach." *Bulletin of the Medical Library Association*, 88(2): 382-388.
- Sudore, R. L. et al. 2006. "Limited literacy in older people and disparities in health and healthcare Access." *Journal of General Internal Medicine*, 21(8): 806-812.
- Voge, S. 1998. "NOAH-New York Online Access to Health: library collaboration for bilingual consumer health information on the Internet." *Bulletin of the Medical Library Association*, 86(3): 326.
- Wood, F. B., B. Lyon, M. B. Schell, P. Kitendaugh, V. H. Cid, and E. R. Siegel. 2000. "Public library consumer health information pilot project: results of a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evaluation." *Bulletin of the Medical Library Association*, 88(4): 314.
- Wu, L., L. Blalock, K. Cunningham, M. Graysno, and P. Stephenson. 2006. "Wiring seniors to quality health information." *Journal of Consumer Health on the Internet*, 10(2): 11-24.

[ 웹사이트 ]

랭키닷컴. [online]. [cited.2019.5.8]. <[http://www.rankey.com/rank/rank\\_cate1\\_info.php](http://www.rankey.com/rank/rank_cate1_info.php)>.

- 수성구립범어도서관. [online]. [cited.2019.4.26]. <<http://library.suseong.kr/beomeo>>.
- CJ헬로 지역방송 공식블로그. [online]. [cited.2019.4.26].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localtv23&logNo=221222940097&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m%2F>>.
- ClinicalTrials.gov. [online]. [cited.2019.4.26]. <<http://clinicaltrials.gov>>.
- Health InfoNet. [online]. [cited.2019.4.26]. <<http://hinfonet.org>>.
- HealthLink Plus. [online]. [cited.2019.4.26]. <<http://www.healthlinkplus.org>>.
- HealthWeb. [online]. [cited.2019.4.26]. <<https://rvahealthweb.org>>.
- MedlinePlus. [online]. [cited.2019.4.26]. <<http://www.medlineplus.gov>>.
- NetWellness. [online]. [cited.2019.4.26]. <<http://www.netwellness.org>>.
- NLM Drug Portal. [online]. [cited.2019.4.26].  
 <<http://druginfo.nlm.nih.gov/drugportal/drugportal.jsp>>.
- NOAH. [online]. [cited.2019.4.26]. <<http://www.noah-health.org>>.
- Public Library of Science. [online]. [cited.2019.4.26]. <<http://www.plos.org>>.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ang, Durk Hyun and Bon Jin Koo. 2016. "A Study on Health Information Websites for Migrant Marriage Wome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0(4): 77-96.
- Committee on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2019. *3th Comprehensive Library Advancement Plan*. Seoul: Committee on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 Kim, Young Sun, Byung Hyun Park, and Hee Yun Lee. 2014. "A Study on Predicting Health Literacy of Korean Elderly Using Andersen's Health Behavior Model."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65: 35-57.
- Korean Academy of Medical Sciences. 2016. *Research on the establishment of mid-and-long-term strategies for providing consumer health information*. Sejong: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Na, Kyoungsik and Yongsun Jeong. 2017. "Exploring Older Adults' Experienced Barriers and Emotional Changes in Seeking Health Informatio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8(1): 227-243.
- Noh, Younghee and Sanghee Oh. 2011a. "An Analysis of the Librarians' Perception of Providing

- CHI Services i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2(3): 25-55.
- Noh, Younghee and Sanghee Oh. 2011b. “An Analysis of Users’ Perception of Providing CHI Services i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2(3): 45-77.
- Noh, Younghee and Sanghee Oh. 2011c. “A Critical Analysis of Literature for Consumer Health Information Services i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2(1): 47-77.
- Noh, Younghee. 2011. “An Analyzing of the Current CHI Services in Korea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5(2): 415-437.
- Noh, Younghee. 2012. “The Development and Performance Measurements of Consumer Health Information(CHI) Educational Programs to Improve Health Literacy among Public Library User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3(4): 391-414.
- Noh, Younghee. 2013a. “A Study on Investigating Roles and Qualifications of Health Information Libraria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4(4): 93-122.
- Noh, Younghee. 2013b. “A Study on Developing the Guideline for CHI Reference Servic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4(2): 345-376.
- Noh, Younghee. 2013c. “A Study on Constructing Collaborative Network Systems for Vitalizing CHI Servic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7(2): 265-291.
- Oh, Youngsam. 2018.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ealth Information Understanding and Medical Expenditur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Summer Academic Conference*, 199-210.
- ‘Over the first 14 percent of the population over the age of 65...Korea’s first official entry into the ‘aged society.’ 2017. JoongAng Ilbo, September 3.
- Ryu, Seewon and Yu Jeong Ha. 2004. “Usage of Health Information on the Internet.”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97: 71-87.